

유병재, 박건형, 김진우, 김종민, 김보성, 돈 스파이크, 권현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tvN 사법 리얼리티 '착하게 살자'

# 진짜 교도소 간 예능 … 첫회부터 논란

범죄자 수감과정 상세히 전달 "신선하다" "너무 심하다" 시청자 반응 천차만별

"감옥은 놀러 가는 곳이 아냐"(네이버 아이디 'asob \* \* \* \* \*')

"웃음기 없는 예능은 낯설지만 교도소에 대한 접근은 신선"('cvb9 \* \* \* \* ')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JTBC에서 방송 중인 교도소 배경의 예능 '착하게 살자'는 지난 19일 첫회 직후부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청률도 3.487%(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로 나쁘 지 않은 기록을 보이며 화제성을 견인했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모방, 감옥 미화 등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사법 리얼리티 예 능'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운 '착하게 살자'는 범죄 후 긴급체포, 재판과 수감 등 실제 수감자들이 겪 는 모든 절차를 상세히 보여줬다.

배우 박건형과 김보성, 개그맨 겸 작가 유병재, 가수 김종민, 작곡가 돈 스파이크, 위너 김진우, JBJ 권현빈은 범죄 전문가들이 짜놓은 '시험카 메라' 안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진짜 교도소'에

박건형은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차를 빌려달 라고 사정하는 동료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인





도피죄를, 유병재와 김진우는 방송 소품으로 사 용된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가 그 불이 산과 천 연기념물을 태워 실화죄를 저지르게 됐다

'있을 법한' 사례이지만 교도소에 수감됐으니 결과적으로 '어마무시한' 죄가 됐다. 내용 자체가 이렇다 보니 예능임에도 첫회부터 웃을 지점은 거의 없었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감옥에서 진짜 하는 건 좀 아니다"('jsle \* \* \* \* \*'), "아이돌 멤버들한 테 이런 짓은 좀 아니다"('ywle\*\*\*\*'), "예 능은 재미 요소가 커야 하는데 소재부터 안 보게

된다"('kues \* \* \* \* ')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신선하다는 평도 적지 않았다.

제작진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협조를 받아 실제 여주교도소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교도소 에 들어간 스타들은 머그샷을 찍고 마약·흉기 등 반입을 막기 위한 항문 검사도 당하는 등 '리얼리 티'가 극대화됐다.

같은 소재의 드라마보다 훨씬 춥고 좁아 보이 는 감옥 내부, 플라스틱 식기와 양이 적은 식사,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함께 생활하는 실제 재소 자의 모습 등에 시청자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qscf \* \* \* \* '는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좋았다"고, 'asto \* \* \* \* '는 "사 실적인 것들을 더 부각하면 청소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cvb9\*\*\*\*'는 "법이 나 죄명 등에 대해 배울 게 있어서 좋았다"고 감

프로그램 연출은 MBC TV '무한도전'에 참여 했던 제영재 PD와 '진짜사나이'를 만들었던 김 민종 PD가 맡았다. 두 PD는 앞서 "시청자에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볼 기회를 드리 고 싶다"며 "작년에 워낙 큰 사건이 많았기에 구 속 절차 등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라 생각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에서 오는 코믹함은 있지 만, 장난 같은 분위기는 최대한 배제했다. 실제 교화 과정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 김유정 2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취업준비생 변신 … 4월 방영

배우 김유정(19·사진)이 JTBC 새 월화극 '일 단 뜨겁게 청소하라'로 '구르미 그린 달빛' 이후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JTBC는 '으라차차 와이키키' 후속으로 오는 4 월에 방송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 김유정이 취업준비생 길오솔 역으로 출연한다고 23일 소

이 드라마는 세상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섭렵 하며 취업난에 허덕이느라 '청결'은 사치가 된 길 오솔과 결벽증이 있는 꽃미남 장선결이 만나 펼 치는 로맨스극으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 로 한다.

JTBC는 "'구르미 그린 달빛', '해를 품은 달' 등 원작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 를 보여준 김유정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선택 한 작품인 만큼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 해달라"고 전했다.



김유정은 "맑고 밝은 오솔이의 에너지와 드라 마 자체에 스며든 기운을 잘 전달하고 싶다"며 "시청자들의 지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 고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출은 '개인의 취향', '인수대비', '궁중잔혹 사-꽃들의 전쟁'에 참여한 노종찬 PD가, 대본 집 필은 '조선총잡이'의 한희정 작가가 맡는다.

/ 연합뉴스

# 김준호 이혼 "아내와 원만한 합의"

개그맨 김준호(42·사진)가 22일 아내 김은영 (44) 씨와 합의 이혼했다.

김준호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준호가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 정, 원만한 합의 후 합의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됐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 러한 결단을 내렸다"며 "김준호 본인 역시 행복 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많은 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김준호는 앞으로도 활동 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 봐 달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호는 2006년 3월 두 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 씨와 결혼했으나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 어지며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는 없다.

김준호는 현재 KBS 2TV '해피선데이-1박2 일'에서 맏형으로 활약 중이며 같은 채널 '개그콘 서트'도 이끌고 있다.

### TV 프로그램

24일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재)	50 로봇이 아니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흑기사(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0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월요기획 (재)		15 MBC스포츠 2018 전미 피겨선수권대회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0 뉴스브리핑
3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결단식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평창 2018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4	10 4시 뉴스집중		05 PD수첩(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재)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톤에이지 15 젤리고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KBS광주 연중기획 남도 스페셜 20 UHD 한식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특집다큐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혀라			
10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리턴
0	05 ABU 다큐 교환회의 특집 NHK 시부야 도쿄, 최고 짓는다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생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프 1~2부
12	35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하객유람기 황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5:00 왕초보 영어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몰랑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홍합탕과 멸치 귤피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샤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대변항 붕장어〉

16:30 한글이 야호(재)

EBS1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즐거움 이스라엘 겨울기행 3부 향료루트 네게브〉 21:30 한국기행 〈기행2 뜨거워도 좋아 차가워도 좋아〉 21:50 EBS 다큐프라임 〈생명의 전략 번식

- 살아남은 것들의 도전〉 22:45 극한직업 〈수제 주방용품 제작-칼과 도마〉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1월 24일(음 12월 8일 丙辰)

### 知天命이 또는 오늘의 운세



48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볼 일이다. 60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72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 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4년생 일반성보다 특수성 의 발현에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71, 22



49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를 상징하므로 먼 안목으로 보라. 61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 전환이 시급한 때 다. 73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하리라. 85년생 쉼 없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낄 틈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04, 37



50년생 겉모습과 실제의 형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느니라. 62년 생 단기간 지연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성사는 되는 태양이다. 74 년생 뜻하는 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한다. 86년생 내버 려 두면 악화 일로를 걷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67, 72

51년생 궁극적으로 원했던 바를 이루면서 무한한 기쁨에 취하겠



다. 63년생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 으로 곤란하다. 75년생 한꺼번에 처리 하자. 87년생 위험성이 보 인다면 우회해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83,01



52년생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다보면 대사를 그르칠 수 있 다. 64년생 기본 노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76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어질 수다. 88년생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봉착 할 수 있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77,80



巳

53년생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단히 부담스럽겠다. 65년생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77년생 발전적인 방 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89년생 달콤한 결과보다는 쓰라 린 과정을 중시하자. 행운의 숫자: 92, 56



午

42년생 약간 활용해도 판이한 결과를 낳기에 충분하리라. 54년 생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 할 수 있다. 66년생 좋은 방법이 보인다. 78년생 작용력 여파를 간과한다면 불리해진다. 90년생 징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29,61



43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 하자. 55년생 교체되면서 원 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67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79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극복하고 남음이다. 91년생 지출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88, 36



44년생 그 어느 것으로도 미진할 것이니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 야 할 때다. 56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 하자. 68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80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19



45년생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57년생 개괄 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69년생 길상이 깨 끗하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81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23, 33



46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58년생 목 적에 부합 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0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한 태양이니 조심해야 한다. 82년생 변수가 보이지만 지나쳐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8, 74



47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59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 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71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 했 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83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05,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